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주택 가격 2월과 3월에 연속 상승
- YahooFinance: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위축됐다
- WSJ: 부채 상한선 합으로 IRS 최대 214억불 소요 예정
- Bloomberg: 부채 상한합의 이미 침체 리스크 직면 미국 경제 타격 예상
-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 대학 진학률 갈수록 감소, 최근 10대 실업률은 70년만에 최저, 미국인 저출산 이유, 팬데믹 이후에도 미 대도시 매력 여전,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
- WSJ: 뉴욕 사무실 건물주 낮은 가격에 내놓는 중

[AI]
- Bloomberg: Nvidia CEO “AI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 뒤쳐질 것”
- WSJ: AI, 전염병 및 핵전쟁과 동등한 '멸종 위험' 제기

[중국 경제]
- Bloomberg: 5월 중국 제조업 부문 개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ostco “중산층 소비자도 구매 부담 느낀다”
- CNBC: 레스토랑 올 여름 매출 호조 기대, 소비자는 불확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ome Prices Rose in March for Second Straight Month
미 주택 가격 2월과 3월에 연속 상승

- 주택 매물이 적다보니 구매자들간에 경쟁을 자극해 미 주택 가격이 연속 상승했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상승했다

- 미 전국 주택 가격 측정 지수인 S&P CoreLogic Case-Shiller National Home Price Index 지수는 계절별 수정치로 2월과 비교해 0.4% 올랐다.

- 연간 기준으로는 3월에 0.7% 올랐는데, 2월의 연간 2.1% 상승률 보다는 줄었다. 연간 상승률로만 보았을때 지난 2012년 5월이후 상승률은 가장 낮았다.

- 한편 지난해 주택 가격이 슬럼프를 보인 이유는 높아진 모기지율 때문이다. 집을 구입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모기지율이 높다보니 주택 소유자가 집 매각이 힘드는 상황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이 올봄에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낮은 매물 때문에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WSJ 기사

YahooFinance: US Consumer Confidence Slipped in May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위축됐다

- Conference Board가 발표한 미 소비자 신뢰지수는 4월에 103.7에서 5월에 102.3으로 감소했다. 이 수치는 1985년을 100으로 해서 비교한 것이다.
- 현재 비즈니스와 노동시장 여건을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현재 여건 지수는 4월 151.8에서 5월에 148.6으로 떨어졌다.
-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수입, 비즈니스, 노동 시장 여건 전망은 동월 대비 71.7에서 71.5로 감소했다.
- 내년까지 침체와 연관된 이른바 기대 지수는 현재 8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WSJ: Debt-Ceiling Deal Will Cost the IRS Up to $21.4 Billion
부채 상한선 합으로 IRS 최대 214억불 소요 예정

- 초당적인 부채 상한선 증액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업적중 하나를 축소하게 함으로써 연방 국세청이 당초 8백억달러의 확대 기금에서 최대 214억달러를 잃어버리게 될 예정이다.
- 당초 연방 국세청이 공화당의 표결없이 통과된 광범위한 법안의 하나로 8백억달러를 받았다. 이 현금 규모는 국세청의 세금 집행을 강화하고 노후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한 목적이었다.
- 그런데9개월 후, 바이든과 공화당은 2년간 차입 한도를 높이고 연방 지출을 삭감하기로 서로 합의하면서 해당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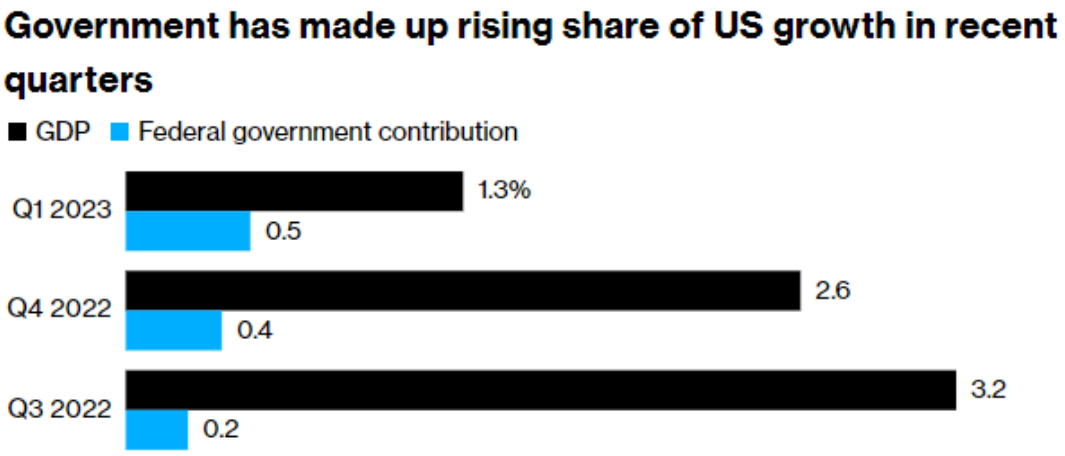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Debt Deal to Hit a US Economy Already Facing Recession Risk
부채 상한합의 이미 침체 리스크 직면 미국 경제 타격 예상

- 연방 부채 한도 증액 합의 관련 정부 지출 상한선은 가뜩이나 수십년만에 높은 금리와 신용 접근 저하로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하원의장과 부채 상한 증액 합의한이 수일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 붕괴를 야기시키는 이른바 지불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미할지 모르지만 세계 초대 경제국의 침체 리스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 최근 몇 분기 동안의 연방 지출 때문에 주택 건설 침체와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이 도움이 되었으며, 부채 한도 협상은 적어도 그 추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KPMG 선임 이코노미스트인Diane Swonk는 “이로 인해 통화정책이 제한적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재정정책이 약간 더 제한적이 될 것이며 더더욱 더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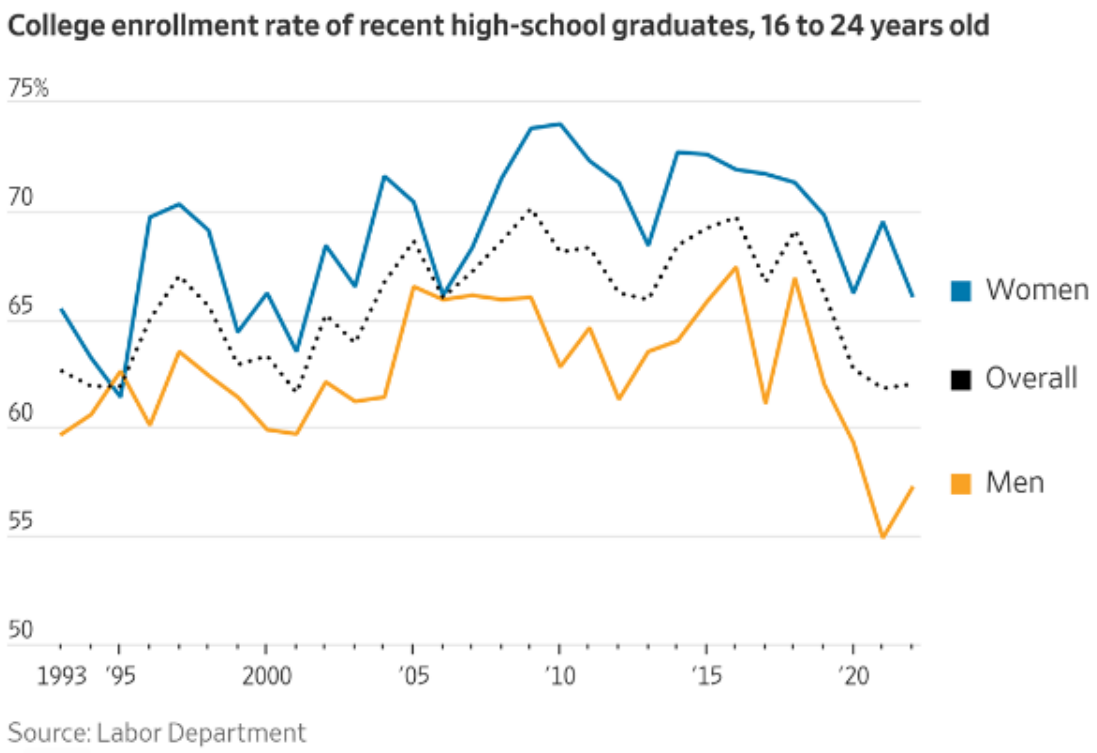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 대학 진학률 갈수록 감소, 최근 10대 실업률은 70년만에 최저, 미국인 저출산 이유, 팬데믹 이후에도 미 대도시 매력 여전,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

[미국 대학 진학률 갈수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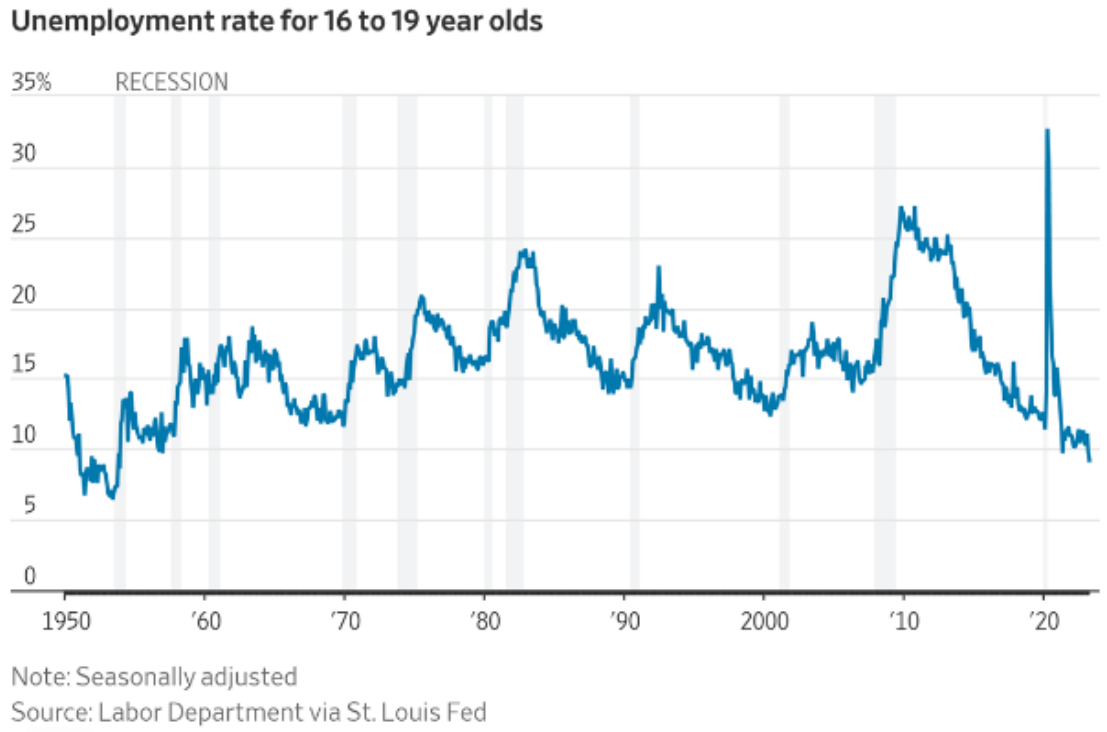
- 미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곧바로 블루칼라 직종으로 진출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16세~24세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팬데믹 전인 2019년 66.2%에서 지난해 62%로 줄었다. 10년간 15% 감소한 셈이다.

- 이같은 이유는 대학 교육 비용이 높고, 학위 취득후 불평등한 수익 차이, 뜨거운 취업 시장 때문이라는 것.



[최근 10대 실업률은 70년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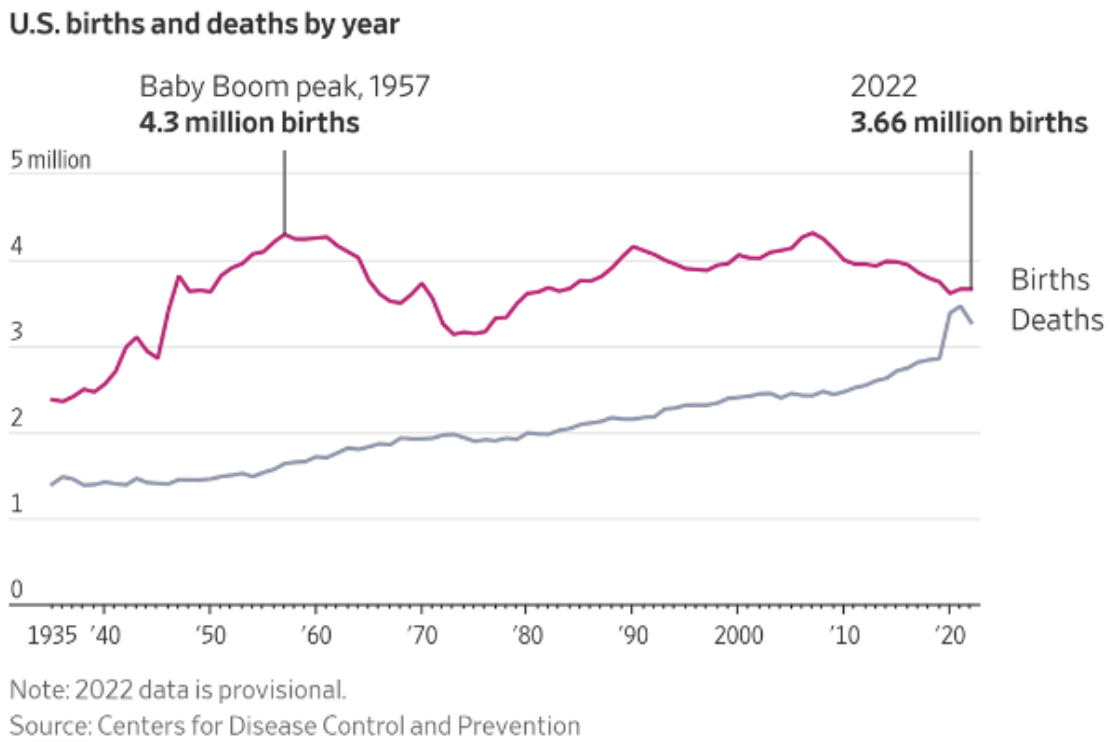
- 10대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70년만에 가장 낮은 4월에 9.2%로 인데다 임금 인상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인 저출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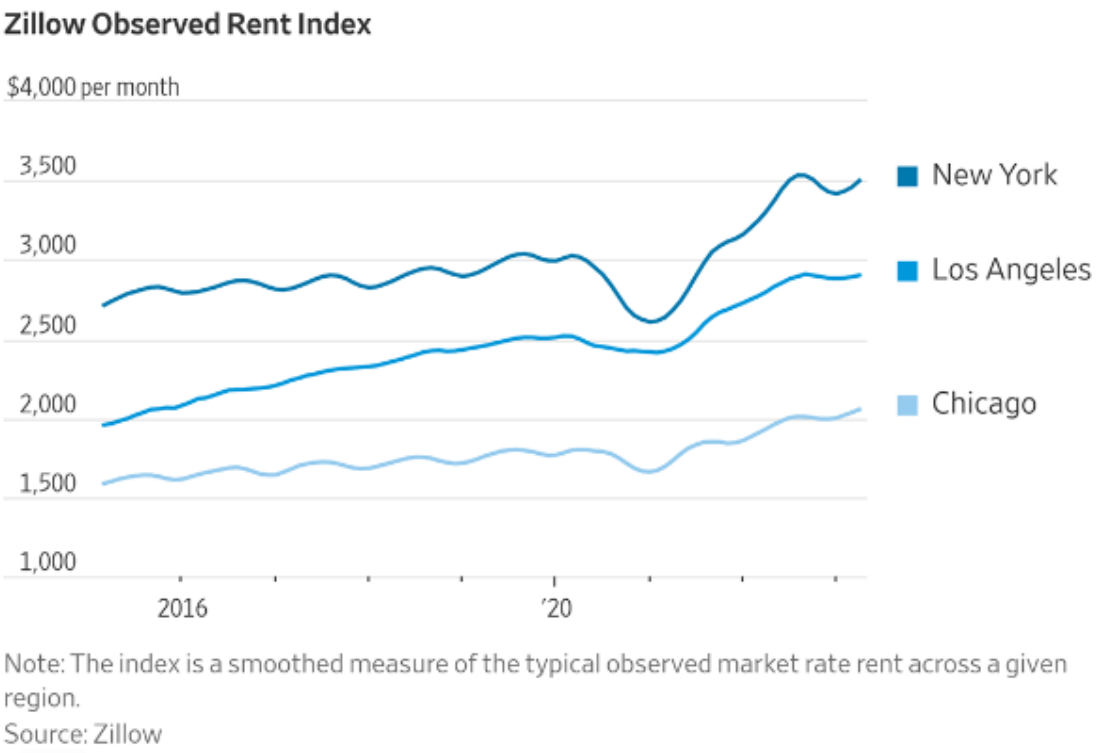
-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는 15년 전에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초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소강 상태처럼 보였던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인 출산율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사회적 장애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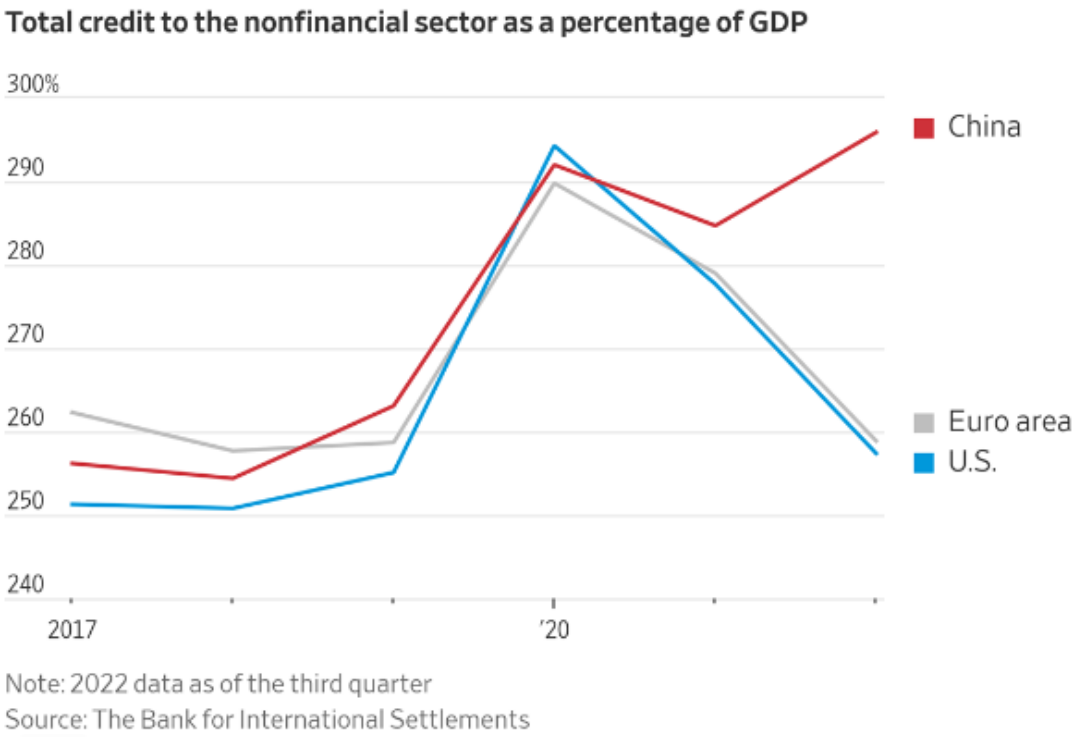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에도 미 대도시 매력 여전]

- 팬데믹 이후 미 대도시 주거지역의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여파와 원격 근무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키고 LA 등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 지역의 매력은 사라지지만 아파트, 레스토랑 등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

-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더딘 상태다. 이제 중국은 부동산붐 쇠퇴, 급증하는 부채, 미지근한 소비, 서구와의 관계 악화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은 약화되고 있다.



[부동산]

WSJ: Office Owners Dump Lesser Buildings for Whatever They Can Get
뉴욕 사무실 건물주 낮은 가격에 내놓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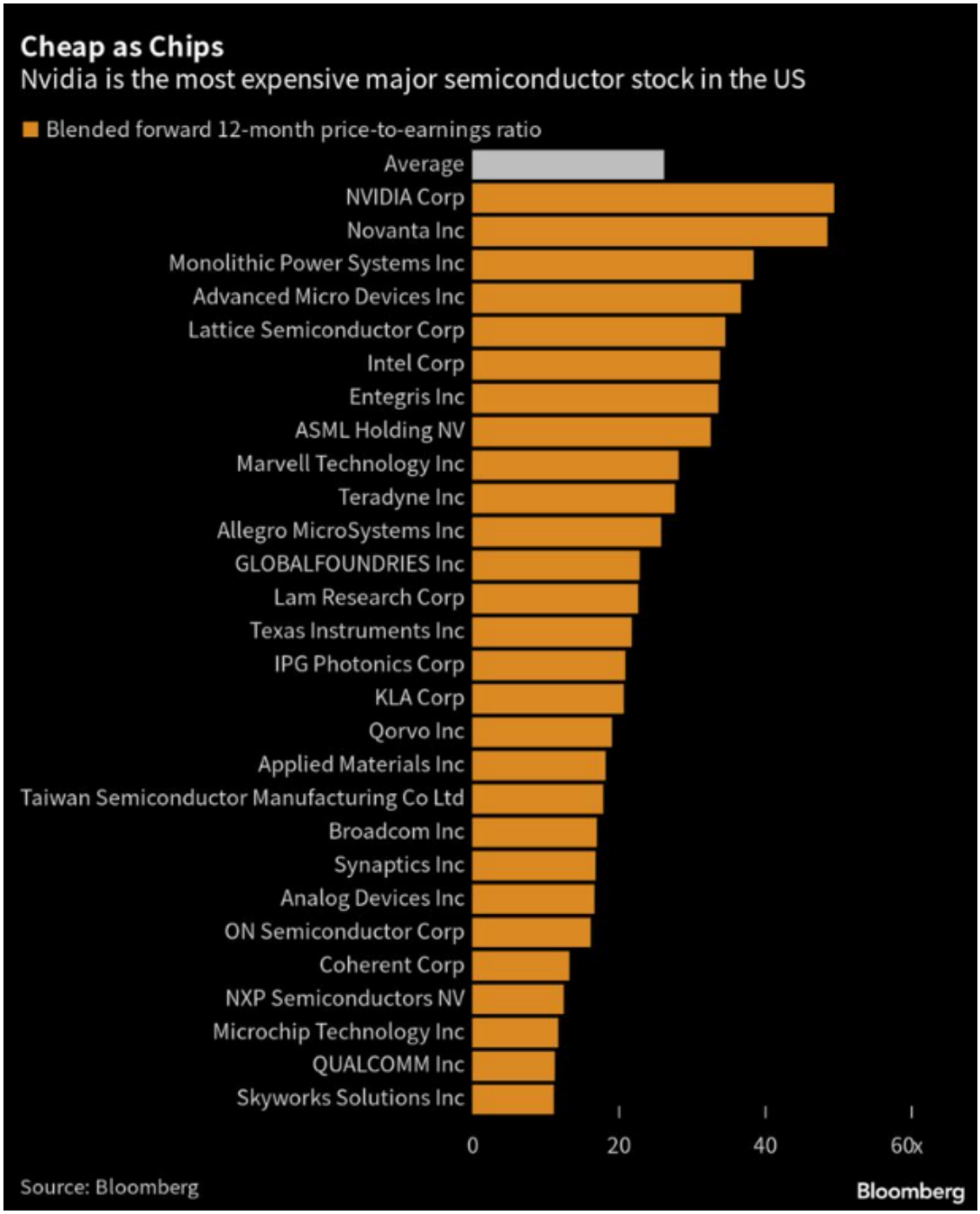
- 뉴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사무실 건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고 있다. 덕분에 1분기에 저조했던 분양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 부동산 개발업체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 5번가에 있는 20층 사무실 건물을 6천 6백만 불 낮은 1억 5백만 불에 매각했다.
- Blackstone 또한 최근 One Liberty Plaza 지분 49%를 10억 불에 매각했다. 이는 2017년보다 5억 불 낮은 금액이다.
- 이러한 낮은 가격의 매각은 사무실 시장의 침체 상태를 보여준다. 사무실 부동산이 시장은 저조한 사무실 복귀율과 높은 금리로 인해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WSJ 기사

[AI]

Bloomberg: Nvidia CEO Says Those Without AI Expertise Will Be Left Behind
Nvidia CEO "AI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 뒤쳐질 것"

- Nvidia CEO인 Jensen Huang은 “기업과 개인은 인공 지능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위험이 있다” 라고 말했다.
- 또한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AI를 잘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부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고 그가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AI Threat Is on Par With Pandemics, Nuclear War, Tech Executives Warn
AI, 전염병 및 핵전쟁과 동등한 '멸종 위험' 제기

- 기술 기업 경영진과 인공 지능 과학자들은 AI 기술이 전염병과 핵전쟁만큼이나 큰 멸종 위험(Risk of Extinc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오늘 화요일 공동 성명에서 말했다.

- 이들은 AI로 부터의 멸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팬대믹과 핵무기와 같은 다른 엄청난 사회적인 규모의 리스크 해소와 같은 글로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의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성장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 AI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 AI 안전 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했다.

- 서명자로는 OpenAI의 CEO Sam Altman, Microsoft의 최고기술책임자 Kevin Scott, Google AI 임원 Lila Ibrahim과 Marian Rogers 외에도 Skype와 Quora의 CEO들이 있다.

- 이 단체는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s Manufacturing Sector Improved in May, Surveys Show
5월 중국 제조업 부문 개선

- 5월 중국 제조업 부문이 전월 대비 개선되어 경기 회복 조짐을 보였다.

- 데이터 제공업체인 China Beige Book에 따르면 5월 중국 제조업 생산량과 국내외 주문이 4월보다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체와 서비스, 소매 부문에서 5월 매출과 이익이 4월보다 크게 증가했다.

- 이코노미스트 Hui Shan에 따르면 중국의 5월 PMI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수요일에 발표될 공식 PMI가 4월의 49.2에서 5월 49.8로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hat Costco’s Baskets Reveal About Consumer Finances
Costco “중산층 소비자도 구매 부담 느낀다”

- 코스트코의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4.2%보다 낮은 수치이며, 2017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 코스트코의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고객들이 고가의 임의 품목을 덜 구매하고 생필품만 구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 이상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almart 또한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들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사는 등 생필품 절약에 힘쓰고 있다. 이는 불황기 때 보이는 현상이다.

WSJ 기사

CNBC: Restaurants expect strong sales this summer. Consumers aren't so sure
레스토랑 올 여름 매출 호조 기대, 소비자는 불확신

- 시장 조사 기관인 Datassential에 따르면 레스토랑 사업자들은 여름철 유동인구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식을 주저하고 있다. 인플레 때문이다.
- 올해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Datassential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3분의 1은 앞으로 외식 횟수를 줄일 계획이며, 절반은 현재 외식 지출을 유지할 계획이다.
- 지난해 소비자들은 인플레로 인해 5~7월에 외식을 줄였다. Sweetgreen은 여름철 여행 급증, Chitpole는 경기 침체, Shake Shack은 저소득층 소비자의 방문 감소 등으로 작년에 매출이 둔화 됐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정부 지출 감축으로 미국 경기 흔들리지 않을 것"

NYT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로 흡수 가능"

미국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심하지 않은(modest) 예산 감축을 미국 경제가 잘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간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감축 때보다는 덜 제한적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